

신문의 날 표어, 결의-선언문

1) 신문의 날 표어

제1회	1957년	—
제2회	1958년	—
제3회	1959년	언론의 자유
제4회	1960년	악법의 철폐
제5회	1961년	신문의 책임
제6회	1958년	신문의 품위
제7회	1963년	신문의 독립
제8회	1964년	신문의 공정
제9회	1965년	신문의 성실
제10회	1966년	신문의 긍지
제11회	1967년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자
제12회	1968년	신뢰받는 신문
제13회	1969년	신문의 자주
제14회	1970년	나라와 겨레와 함께 뻗는 신문
제15회	1971년	신문인의 단결
제16회	1972년	신문의 양식(良識)
제17회	1973년	—
제18회	1974년	신문의 사명
제19회	1975년	—
제20회	1976년	국민복지에 앞장서는 신문
제21회	1977년	—
제22회	1978년	독자에 봉사하는 신문

제23회	1979년	독자가 참여하는 신문
제24회	1980년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25회	1981년	시대를 이끄는 신문
제26회	1982년	품격과 신의를 지키는 신문
제27회	1983년	언론의 국제화
제28회	1984년	현대화를 다지는 언론
제29회	1985년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신문
제30회	1986년	화합을 다지는 신문
제31회	1987년	바른 신문 밝은 사회
제32회	1988년	자유경쟁시대의 신문
제33회	1989년	자율과 책임과 화합
제34회	1990년	책임있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
제35회	1991년	자정으로 신뢰회복, 자율로 책임완수
제36회	1992년	사회에는 정의를 독자에게 신뢰를 책임있는 보도, 사랑받는 신문 신문의 특성화, 기자의 전문화
제37회	1993년	기자는 자정노력, 보도는 공정노력
제 38회	1994년	정직하게 만든 신문, 밝은 미래 약속한다. 자율로 크는 신문, 세계로 뻗는 신문
제39회	1995년	세계를 읽는 신문, 미래를 보는 국민
제40회	1996년	자유로운 언론 책임있는 신문
제41회	1997년	흔들리지 않는 언론 백리 길은 튼튼
제42회	1998년	자성하는 언론 믿음 주는 정론, 미래를 읽는 신문, 21세기를 개척한다.
제43회	1999년	새로운 천년 신문과 함께
제44회	2000년	펼친 신문, 열린 미래
제45회	2001년	언론자유 소중하게 공정보도 책임 있게
제46회	2002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언론

제47회	2003년	독자에게 떳떳하고 역사 앞에 당당한 언론
제48회	2004년	국민의 소리로, 세상의 빛으로
제49회	2005년	독자 앞엔 등불처럼 세상 앞엔 거울처럼
제50회	2006년	언론도약의 반세기 독자와 함께 미래로

2) 결의문과 선언문

決議文〈1959. 4.6〉

제3회 신문주간을 맞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및 제3회 전국언론인대회는 “신문은 보도 및 평론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신문의 자유를 제한 또는 간섭하는 법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유도 물론 이에 포함한다”고 한 신문윤리강령 제1항에 입각하여 특히 개정선거법과 신국가보안법의 언론관계조항 등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1958년 1월 5일 및 동년 11월 21일의 본협회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이와같이 언론을 제한하는 모든 악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할 것과 그 철폐로서 침해된 민권을 회복하는데 계속 전력을 집중할 것을 이에 다시 결의한다.

決議文〈1960. 4.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및 제 4 회 전국언론인대회는 ‘언론을 제한하는 모든 악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1959년 4월 6일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제4회 신문주간을 맞아 특히 현행의 신문발행 허가제의 철폐를 당면목표로 한다.

신문발행의 허가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한 미군정법령 제88호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이 아니라 과거 1년동안에 동 법령으로 말미암아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위협을 받은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 미군정법령 제88호의 즉시 폐기를 주장하며 이를 대치할 유사한 신법규의 제정도 반대한다.

이리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민권을 회복 신장하는데에 계속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결의한다.

宣 言 文 〈1961. 4.6〉

오늘 1961년 제5회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 신문인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적 발전에 있어 신문의 사명이 중대함을 다시금 느끼고 우리들이 채택공포한 '신문윤리강령'의 文言과 그 정신을 존중하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총회결의로써 다음의 '신문의 책임'에 관한 선언문을 공표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 통신 기타 모든 정기간행물의 기자는 물론 편집 발행의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자유가 그 책임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명심하여 그 자기규제의 원칙을 더한층 양양하고자 하는 바이다.

무릇 신문의 자유는 진실과 정의를 높이 사모하는 인간의 양심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한 이해와 판단을 널리 疏通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것을 그 정신으로 한다.

따라서 신문은 결코 신문사 또는 그 소속 신문인들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만족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떠나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이용물이 될 수 없다.

신문은 어디까지나 선량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회의 건전한 交涉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성실하고 용감한 방패가 되어야 하며 사회의 모든 불법 부패 또는 無用한 不安 혼란의 조작을 제거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그것이 곧 신문의 숭고한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다.

신문의 책임은 오로지 신문을 제작 또는 경영하는 신문인 자신에게 있다. 신문기자는 사회의 요구에 酬應할만 한 신문의 要員으로서 각자의 특정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교양을 갖추어야 하며 또 높은 품격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分秒의 역사가 刻刻으로 運行됨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새 소식 새 문제 새 지식을 전달 분석 해명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신문기자는 그 사회적 위치와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각별한 깨달음을 가지고 보도의 정확과 논평의 공정을 위하여 최대의 성실을 기울여야 한다.

신문기자는 모름지기 겸허 솔직 廉潔하여 사물의 관찰 판단에 앞서 선입견을 경계하고 또

世間の 이해 係爭에서 초연하여 사실의 진상을 정확히 捕捉하기에 노력함으로써 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 의혹 불안을 유포하거나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타방의 명예나 권리 또 사회전반의 이익이 침해받는 일이 있을까 항상 두려워 하여야한다.

이리하여 널리 사회의 신뢰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신문기자의 尊重한 명예가 되고 그 독특한 사회적 위치를 지닌다는 뜻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림으로써 신문이 사회의 공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신문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신문경영자의 책임은 더욱 중대하다. 신문이 결코 개인의 이용물이나 소위 행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신문의 일부 경영책임자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청되어가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신문기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다하게 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어 그 사회적 위치를 견지케 할 수 있도록 경영자 스스로가 신문자유의 투사로서 그 선봉이 되어야 한다.

사회공기의 미명을 팔아 신문의 윤리를 유린하고 사회에 해독을 끼치며 경영되고 있는 신문 기타 모든 정기간행지는 그 犯過가 그 소속 어느 사원에 있건간에 그 전책임은 발행인에게 돌아간다. 일정한 발행의 목적과 경영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여 공중의 혐오와 지탄을 면치 못하는 신문 통신 잡지 등은 스스로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신문의 발행은 국가 사회와 더불어 역사를 같이하는 것이다. 신문의 명예와 발전은 신문의 자유 독립정신의 실천여하에 달려있다. 신문의 건전한 발행과 신문인의 책임여하가 국가사회와 지대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신문의 책임을 위한 길이 곧 신문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宣 言 文 (1962. 4.6)

오늘 제6회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 신문인은 앞서 우리 스스로가 채택하였던 '언론의 자유' 및 '신문의 책임'에 관한 선언문의 指標를 상기함과 아울러 우리들이 역시 채택한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신문의 품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 한다.

원래 신문은 사회의 공기로서 고상한 품위가 시종 견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문이 사회

로부터 신임받은 職分에 충실하는 것이며 또 신문이 그 막대한 영향력에 대응하는 책임을 擔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신문의 기업화는 그 보도 평론 오락의 각부면에 있어서 자칫하면 기능과 역기능이 交錯되는 현상을 시현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신문이 기업인 이상 그 구독자인 독자 대중의 흥미의 圈外에 초연하게 유리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오보·편견 등으로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를 엄격히 배격한다.

신문의 윤리수준을 제고하면서 그 품위를 유지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들 신문인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자인한다.

우선 우리 신문인들은 그 스스로의 품격과 긍지를 간직하여야 한다. 특히 獨立不羈의 굳은 정신에 투철하여야 하며 추세에 영합하거나 不當한 이득에 관련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문인들에 대한 적정한 조건의 용성이 그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附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보도나 평론에 있어서 不當한 공격이나 時流에 맹종하거나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야비한 사실의 과대보도 등으로 사회의 빈축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문이 제작되어서 사회의 공기로서의 그 본래의 기능을 성실하게 다하도록 되어야한다.

이제 모든 신문·통신의 기자로부터 편집 발행의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신문인은 사회의 공기로 그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신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단정하고 그 실천에 최대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建 議 文 〈1963. 4.6〉

우리는 第 7 回 新聞週聞을 맞이하여 스스로가 지닌 責任과 使命이 크고 무거움을 또다시 절실하게 느낀다.

自由롭고 責任있는 言論이야말로 民主社會의 基本條件임을 再確認하면서 政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建議한다.

1. 3月16日 公布된 「非常事態 收拾을 위한 臨時措置法」中 言論에 關한 條項의 撤廢와 特定 犯罪處罰에 關한 臨時 特例法 第3條의 3에 公益을 위한 言論出版에 있어서의 免責 條項의 挿入을 要請한다.
2. 筆禍 事件에 關해서는 原則的으로 新聞倫理委員會에서 規制케 할 것을 要請한다.
3. 言論人의 拘束問題는 刑事訴訟法上의 一般原則에 따라 慎重히 다루어 줄 것을 要請한다.

宣 言 文 (1963. 4.6)

오늘 第7回 新聞의 날 을 맞이하여 우리들 新聞人들은 言論의 自由와 責任의 價値를 거듭 強調 하고 우리들이 採擇한 新聞倫理綱領및 그 實踐要綱의 原則을 다시한번 確認하면서 今年의 行動目標로 「新聞의 獨立」을 定하여 다음과 같이 宣言한다.

新聞의 獨立은 自由社會의 生命이요, 新聞의 獨立없이 民主主義는 成立될수 없다. 실로 新聞의 歷史는 곧 新聞의 獨立을 成就시키는 피어린 발자국이였다.

新聞의 獨立은 첫째로 一切의 權力으로부터의 獨立을 말한다. 報道나 評論의 展開에 있어서 官權의 干涉을 排除하고 自由로운 立場에서 眞實을 報道하고 是是非非를 論함으로써 自由社會의 構成員에 國內外의 情勢를 傳하고 健全한 輿論形成에 寄與하는데 그 價値가 있다. 이것은 비단 新聞企業과 新聞製作의 올바른 向上을 위한 것일뿐 아니라 健全한 民主政治에 不可缺한 要素가 되는 自由社會의 原動力이다. 따라서 이러한 新聞의 現代的 使命을 다하기 위해 新聞은 一切의 權力으로부터 獨立하여 自由로운 姿勢를 갖추어야 한다고 確信한다.

둘째로 新聞의 獨立은 政黨, 團體, 宗教 또는 어떤 個人이나, 集團으로 부터의 壓力을 排除하고 오직 製作의 原理·原則에 立脚해서 新聞人의 良心과 良識에만 服從한다는 것을 뜻한다. 新聞이 어느 個人이나 集團의 利害關係에 隸屬되어 國民大衆의 눈을 현혹시키는 時代는 갔다. 지금은 新聞을 어느 누구도 私用할 수 없고 또한 利用當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切實히 認識하고 다짐한다.

세계로 新聞의 獨立은 단순히 外部壓力으로부터의 獨立이라는 消極的인 側面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家와 社會를 위한 獨立이라는 것을 우리는 明白히 認識한다. 一切 外部壓力을 排擊한다는 것 自體는 目的이 될 수 없다. 오직 國家·民族의 繁榮과 健全한 輿論形成 및 그 反映을 위하는 目的意識 아래 手段으로 新聞의 獨立이 所重한 것이라고 斷定한다.

우리는 모든 新聞人이 이 날을 期하여 獨立不羈의 精神에 透徹해서 本來의 使命을 다할 것을 盟誓하며 우리의 이러한 姿勢에 沮害가 되는 一切法律 制度 및 慣行의 止揚을 嚴肅히 要求하는 바이다.

決議文〈1964. 4.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한국통신협회는 1964년 4월 7일 제8회 신문의 날을 당하여 『신문의 공정』을 금년도 신문제작의 주요목표로 삼고 그 달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신문은 신속 정확과 함께 공정을 그 생명의 하나로 삼는다. 독자대중이 신문을 신뢰하고 신문에 의하여 사회의 새로운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신문이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공정이 무너지면 신문에 대한 독자대중의 신뢰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신문은 그 평론 보도를 막론하고 정치상 사회상의 선입견과 특정한 개인 집단에 대한 호오(好惡)등 편파로써 사실에 충실치 못하고 공정을 결하여 여론형성에 그릇된 작용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더구나 특정한 개인 집단에 이유 없는 이해를 주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신문의 공정은 물론 신문제작자 전체의 의연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유지된다. 신문의 제작과정에 따르기 쉬운 금력·권력·친소관계·폭력 등 여러 위협과 유혹을 극력배제함으로써 이루어 질 신문의 공정은 그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지킴으로써 신문에 대한 독자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문의 권위를 견지하고자 거듭 그 결의를 표명하는 바이다.

宣 言 文 (1965. 4.6)

오늘 제9회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 전국 신문인은 지나간 70년동안에 쌓아올린 이 나라 언론선배들의 피땀 투쟁의 뒷자국을 엄숙히 회상하면서 그 보람찬 열매를 이어받아 연면한 「언론의 자유」를 이땅에 꽃피게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다시금 통감하고 일찌기 우리가 스스로 채택하였던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의 이념과 제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올해의 행동목표로 「신문의 성실」을 내걸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첫째로 과연 민주사회의 「제 4 부」로 자처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건전한 자체 환경에 놓여 있는가?

둘째로 과연 민중의 두터운 신뢰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성과 양식을 바탕으로 성실히 신문에 종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심각한 자문자답에서 우리는 실로 옷깃을 여미고 양심에 복종하는 경건한 자아비판이 없어서는 안될 일이다. 밖으로 싸우는 일에 용기와 신념이 필요한 이상으로 안으로 싸우는 일에는 더욱 더한 기개와 성실한 인간성이 요청된다.

작년의 이른바 「언론과동」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간신히 「언론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제 모든 신문인이 그때에 못지않은 노력과 결속으로 성실한 신문을 만들기 위하여 정진해야할 단계임을 명심하여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향한 건전한 여론형성에 성실한 역군이 되기를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建 議 文 (1965. 4.6)

1965年 4月 7日 第 9 回 新聞의 날을 맞이하여 本大會는 지난해 8月 2日 國會에서 通過되고 同月 5日 政府가 公布 實施했다가 다시 施行保留한 채 지금에 이른 「言論倫理委員會法」을 此際에 完全 廢止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다.

지난해 6·3 戒嚴의 副産物로 拙速 制定된 言論倫理委員會法은 그 制定動機와 立法過程에 있어 非民主的 요소와 政治的 背景이 얽혀 있을뿐만 아니라 그 內容에는 國民의 基本權利인 言論自由의 本質을 侵害하는 違憲的인 條文과 모순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우리나라 言論의 育成과 韓國의 民主發展을 크게 沮害할 우려가 있다해서 當時 全國日刊新聞·通

信·放送 및 定期刊行物에 從事하는 우리 言論人一同은 朴正熙大統領과 李孝祥 國會議長에게 이 法을 各各 撤廢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建議를 하고 그후에 다시 韓國編輯人協會·記者協會에서는 全會員들의 連記名으로 國會議員全員에게 同法 廢止를 呼訴하는 請願書를 낸 바 있음을 여기에 상기시키는 바이다.

소위 昨年 8月の 言論波動 수습책으로서 言論界와 政界가 名譽로운 妥協을 한 以來 政府는 言論倫理委員會法 시행을 保留했고 우리 言論人들은 言論人自體에서 補強 構成한 新聞倫理委員會를 通하여 自律的인 規制를 해음으로써 同法으로 因한 政府 與黨과 言論界의 긴장 및 對立關係를 止揚, 모처럼 合心融和하여 國利民福을 爲해 盡力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政府는 이 協調 무드를 더욱 公高히 하기 爲해서라도 言論倫理委員會法을 이번 기회에 全廢하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全體言論人은 政府當局과 國會議員 全員에게 다시한번 同法 撤廢를 鄭重히 建議하는 바이다.

宣 言 文〈1966. 4.6〉

오늘날 격동하는 내외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신문이 걸머진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은 참으로 크고 무겁다. 그 당면과업이 국가민족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신문 본래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한 노력에 앞서, 자유언론의 기본적 토대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직면해야만 했었다. 우리는 그 집요한 도전에 국민의 성원과 신문인의 용기, 그리고 단결된 힘으로 대항하여 상처는 입었으나 패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또 다른 가혹한 시련이 닥쳐온다해도 우리의 자유언론 수호의 대열은 흠어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민중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냉엄하고도 겸허한 자아비판을 거듭해왔다.

그 스스로를 향한 반성과 자각의 채찍질은 마침내 한국신문에 중요한 전환기를 초래케 하는 동인(動因)의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곧 이 나라 신문의 타성이며 전통이기도 했던 체질적인 저항의 자세와 부정(否定)의 생리, 그리고 냉소적(冷笑的) 습성에서의 탈각이었다.

이제 우리는 부정에 앞서는 긍정을, 또 저항이나 냉소이상의 건설적이며 지도적인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신문의 소임인가를 절감(切感)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와같은 발전을 위한 신문제작의 이념이 결코 권력에의 타협이나 굴종, 불의와 부정에 대한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들이 풍운과 어둠에 덮인 망국의 전야에 민족의 각성과 사회개혁의 길을 밝힌 등불처럼 탄생했던 「독립신문」 창간 70주년을 기념하는 제 10 회 「신문의 날 대회」에서 「신문의 긍지」를 새로운 지침으로 이자리에 내걸게 된 까닭은 바로 그점에 있다.

「신문의 긍지」는 그 어떤 힘에 의한 억압이나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공정한 언론으로서 지켜지고 향상된다는 것을 굳게 다짐한다.

더 나아가 「신문의 긍지」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무지와 편견을 몰아내고, 위선과 사악(邪惡)을 쓸어없애면서 부강한 나라와 유복한 사회발전을 촉진케 하는 지도성을 충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또 「신문의 긍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불법하고 부당한 권력의 작용이라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신문은 권력의 종복(從僕)일 수 없으며, 또 신문과 정부는 적대관계를 형성해서도 안된다. 민주사회에서 「제 4 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신문은, 부단히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요인을 막으면서, 민의를 반영케 하는데에 커다란 존립의 의의가 있다. 우리의 신문은 그러한 과업에 충실함으로써, 그 「긍지」를 지키고,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신문의 긍지」는 궁극적으로 신문인의 건전한 자세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바라기 어렵다.

특히 우리는 신문인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권력에의 집착과 금력과의 야합임을 명심하고 타락한 언론인의 출현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오늘 「신문의 긍지」를 깃밟으려는 밖으로부터 오는 무모한 도전과 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모독하는 어떠한 요소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전국 신문인의 이름으로 제10 회 신문의 날에 엄숙히 선언한다.

宣 言 文 <1967. 4.6>

國民의 알權利는 人間의 自由가 天賦不可謂의 自然權이라는 歷史的인 人類의 自覺에서부터 出發하여 數世紀에 걸친 民衆의 鬪爭끝에 確立된 가장 소중한 基本權利이다. 國民의 알權利야말로 言論自由의 專制的 條件이며 그 實質이라해서 지나칠 것이 없다. 우리는 일찌기 新聞倫理綱領을 採擇하여 國民의 알權利에 副應하는 것이 우리 最大의 使命임을 誓約하고 그를 지키기 위하여 盡力해 왔다. 그러나 오늘 第11回 新문의 날에 즈음하여 다시금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자』고 다짐하게 된것은 그 本質을 再認識하고 이를 宣揚해야 할 現實狀況 때문이다.

무릇 國民의 알權利는 言論人 혹은 言論機關만 이 갖는 特徵이 아니라 主權者인 國民이 享有하는 基本的 權利임을 再闡明하는 바이며 따라서 『國民의 알權利를 侵害하거나 抑制하려는 如何한 企圖도 곧 主權者에 대한 挑戰이요 國民의 基本權을 짓밟으려는 妄動임을 強調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國民의 알權利를 沮害하는 要素는 不法하고 不當하게 自由言論에 加해지는 權力的 作用과 正體不明의 卑劣한 暴力이다』. 우리는 政府에 대하여 그와 같은 現存 혹은 潛在하는 危險 要因을 뿌리뽑아야할 것을 要求하면서 國民의 알權利를 지키기 위한 不動의 信念과 決意를 새로이 하는 바이다.

우리는 國民의 알權利를 확보하고 더욱 伸張하는데 있어 앞으로 그 어떤 試鍊에 부딪친다고 해도 不撓不屈의 鬪志와 단결된 힘으로 과감히 이에 對決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不法不當한 權力이나 暴力의 浸蝕을 물리칠 毅然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냉엄한 自體反省을 계속하면서 國民의 알權利를 濫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참된 自由言論이 지닌 意義와 價値를 실현하는 責任을 다할 것이다. 그와 같은 正當한 抵抗의 精神과 자율적인 責任意識은 國民의 전통적인 信賴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國民으로부터 委託된 알權利를 公明正大하게 行使할 수 있는 基礎가 될 것이다.

우리는 國民의 알權利를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屈服이나 妥協도 拒否할 것이며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을 것이다. 또한 自由言論이 國民에 의하여 不信의 對象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스스로를 向한 警覺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全國新聞人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엄숙히 宣言한다.

宣 言 文 <1968. 4.6>

國民의 믿음이 없는 新聞은 存立하지 못한다. 國民的 信賴야말로 自由롭고 責任있고 公正하며 品位높은 言論이 뿌리내릴 터전이다.

新聞이 서야할 그 소중한 발판이 흔들리게 된다면 필경 社會는 어둠에 싸이고 民衆은 갈길을 잃고말 것이다. 實로 新聞은 한 社會의 良心과 良心을 상징하는 길잡이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오늘의 新聞이 全體的인 國民의 信賴위에 서있는가를 돌아켜 볼 때 우리는 스스로 反省해야 할 바가 적지 않다.

우리들 全國의 新聞人들은 新聞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으려는 현저한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결코 소수 讀者만이 갖는 偏見이라고 看過할만한 理由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淨化되지 못한 言論界 一角에 도사린 似而非言論과 言論人의 발호는 모든 言論人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 社會를 쪼먹는 독소로서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新聞에 加해지는 불만의 一部는 不正確 하거나 不公正하거나 알려야할 것을 알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反省하고 항상 眞實과 公正에 바탕한 報道와 論評을 위한 萬般의 노력이 新聞에 대한 不信의 그늘을 벗어나게 할 지름길임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國民을 위하여 國民에게 주어진 自由言論이 어떤 企業에 주어진 特權일 수 없다는 事實에 留意하고 新聞의 製作이 不純한 目的에 利用되는 일이 없기를 경계할 것이다. 그 窮極의 目標은 오로지 良心의 命令에 따라 옳고 바른 新聞製作에 매진할 수 있는 編輯의 自主性이 確立되어야할 것으로 確信하고 계속 自由言論에 挑戰하는 不法하고 不當한 그 어떤 힘에도 不屈의 勇氣와 鬪志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안팎으로부터 벌어지는 讀者의 信賴를 沮害할 要素를 果敢히 물리쳐가면서 우리의 두 어깨에 걸머진 무거운 時代的 使命의 完遂를 위하여 專心全力할 것을 第12回 신문의 날 대회에서 엄숙히 宣言한다.

宣 言 文 <1969. 4.6>

新聞이 政治上·經濟上·社會上 偏見의 支配를 받지 않아야 하고 公共의 利益에 違背되는

個人的 利益이나 無價値 또는 不道德한 目的에 私用될 수 없다는 것은 不動의 原則이다. 他人의 命命 또는 依賴로 말미암아 이 原則을 어겼다고해서 新聞이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는 것은 新聞倫理綱領이 明示하고 있는 바와 같다.

報道 및 評論이 新聞內外로부터 오는 特種 또는 請託 등의 壓力에 左右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壓力으로 말미암아 正當한 記事가 抑制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新聞倫理實踐要綱이 明示하고 있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新聞倫理實踐要綱은 記事의 作成 및 取捨整理에 있어 政治上의 先入見 또는 特定한 個人 또는 機關, 團體의 利益을 위하여 故意로 事實을 誇張 또는 減殺해서는 안된다고 闡明하고 있다.

어떤 一黨一派에도 隸從함이 없이 人類와 國家·民族의 발전과 繁榮을 念願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立脚하여 正當한 보도와 公正한 논평을 期約함이 新聞의 自由로 獨立이요, 바로 이것이 新聞의 使命이고 責任과 論理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使命과 責任과 倫理를 다하여 왔는가를 反省하면서, 오늘 우리는 新聞이 自主的으로 經營되어야 하고 自主的으로 編輯되어야 한다는 鐵則을 再確認하며 新聞의 自主性을 확립하는데 萬全을 期할 것을 第13회 新聞의 날 기념대회에서 嚴肅히 宣言한다.

宣 言 文 〈1970. 4.6〉

오늘 70 년대의 첫 新聞週間에서 우리는 나라와 함께, 겨레와 함께 뻗는 新聞의 확고한 자세를 다시한번 다짐한다. 우리 新聞의 理想은 나라의 유구한 命運속에서, 겨레의 살아있는 의식 속에서, 개척되어야 한다.

이러한 新聞의 理想은 결코 어떤 黨派나 勢力에 左右될 수는 없다. 그것은 당파나 세력의 수명은 有限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유구하기 때문이다. 新聞의 이상은 개인이나 집단 의 이익이나 영향에 의해 歪曲될 수가 없다. 그것은 나라와 겨레의 순결 속에서 新聞이 커나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文化구조는 그 나라의 存立與件에 의해 규정된다. 文化구조의 한 형태로서의 新聞은 無色透明한 공간속에서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新聞은 나라와 함께 永續하고 겨레와 함께 呼吸을 같이 한다. 다른 모든 나라의 新聞이 그

러했고 독립신문이래 70여년간 한국신문의 전통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한다.

겨레가 蒙昧했을 때 우리의 신문은 이를 깨우쳤고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 신문은 警鐘을 울렸다. 신문이 그 理想을 잃고 비틀거릴 때 겨레는 이를 叱咤했다.

우리의 신문은 겨레와 함께 호흡하면서 나라와 함께 永續할 수 있다는 教訓을 傳統으로 안고 있다.

나라와 겨레와 함께하는 新聞의 理想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있는 주변을 自省한다.

編輯의 자주성과 企業의 合理化 그리고 모든 우리의 處身이 나라와 겨레가 요구하는 理想에 비추어 몇몇했던가를 自省한다.

言論自由와 責任의 目標가 나라와 겨레의 이상 속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자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 더욱 많은 용기와 지혜를 짜낼 것임을 宣言한다.

宣 言 文 (1971 . 4.6)

오늘 우리들 全國의 新聞人은 굳은 團結로서 自由言論에의 緊要한 挑戰을 물리치기 위한 決意를 새로이 한다.

실로 우리가 警戒해야할 것은 밖으로부터 加해지는 不法, 不當한 干涉이나 破壞의 威脅, 그리고 안에서 싹터가는 挫折, 自嘲, 獨善의 傾向이라고 우리는 規定한다.

우리는 言論自由의 守護에 透徹할수록 그 論理性和 責任性에 徹底해야 한다는 原則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 兩大命題를 위하여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自由言論을 지키는 과감한 鬪爭을 전개하는 한편 冷嚴한 自我批判을 거듭해왔다. 그리하여 言論을 規制하려는 諸立法 企圖를 물리쳤고, 自由言論을 위태롭게 하는 兇한 事件에도 不屈의 鬪志로 싸워 왔으며 또한 우리는 스스로의 허물에 대해서도 自省과 自責의 襟度を 잃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5년전의 오늘, 第10回 新聞의 날 宣言文을 통하여 韓國新聞의 一大轉換을 의미하는 『體質的인 抵抗의 姿勢와 生理, 그리고 冷笑的인 習性에서의 脫却』을 前提로 『建設的이며 指導的인 努力』을 新聞의 으뜸가는 使命으로 규정할 것을 確認하기에 이르렀었다.

그信念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여러 現實의 逆境과 製作上の 難關 속에서도 國家社會 發展을 希願하는 一念으로 잡고 건디며, 오로지 負荷된 時代的 使命의 完遂를 위해 盡力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自由言論의 暢達을 沮害하는 새로운 形態의 威脅이 스며드는 局面에 부닥쳐, 非常한 決意로서 이를 打開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政治勢力, 集團, 階層을 막론하고 不法, 不當하게 言論에 干涉하려는 여하한 試圖도 단호히 粉碎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보다 國民의 興望에 副應하고 『알權利』를 충실히 保障하기 위하여 肯定과 否定의 態度를 明白히, 그리고 正正堂堂하게 표시하며, 自身과 反對되는 見解도 善意로서 傾聽할 줄 아는 새로운 氣風을 불려 일으킴으로써 讀者들이 共通의 所以로 지닌 不滿을 解消하는데 힘쓸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當面の 目標達成을 향해 發行人, 編輯人, 記者가 한데 굳게 團結, 邁進할 것을 第15回 新聞의 날에 즈음하여 滿天下에 宣言한다.

宣 言 文 <1972. 4.6>

오늘 제16회 新聞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全國新聞人은 內外的 어려운 與件속에서 新聞의 良識을 굳게 堅持할 것을 다짐한다.

新聞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左右될 수 없는 社會의 公器로서 時時刻刻으로 움직이고 變하는 情勢를 신속히 알리고 公正히 論評하여 國民들로 하여금 時代에 대한 正確한 判斷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內外的 움직임이 複雜微妙한 狀況속에서는 新聞의 보다 正確한 報道및 보다 公正한 論評에의 要請은 더한층 切實한 것이다. 新聞은 이제 더욱 더 스스로의 良識을 가다듬어 國民의 新聞이 되기를 自期하려고 한다.

따라서 新聞은 마땅히 報道하고 論評해야할 일을 어떤 理由에서라도 報道하지 않고 論評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新聞의 機能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讀者에 대한 忠實한 義務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되며 그것은 또 國民의 期待를 저버리는 것이다.

新聞의 관심은 주로 지금 이곳에 있어야하고 지나간 일이나 돌아올 일에 比重을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된다. 新聞이 지나간 일이나 未來의 일에 너무 관심을 쏟으면 그만큼 現實을 外面하는 것이 되며 現實을 逃避하는 듯한 印象을 준다. 그 어느 경우도 이것은 新聞人의 正道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新聞人들에 가장 切實하게 要請되는 課題는 眞實을 報道하는 일이다. 報道의 正確을 期하기 위해서는 事實을 偏見없이 먼저 分析해야 하고, 전체를 把握해야 하며, 그 意味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事實의 正確한 傳達은 高度의 良識과 올바른 價値觀에 立脚해야 한다.

新聞人에게는 外部로부터 끊임없는 作用과 유혹이 따를 수 있지만 이와같은 作用과 유혹을 물리치고 使命感에 충실하기 위한 굳은 意志와 勇氣가 없어서는 안된다.

新聞人은 이같이 오늘에 살고, 民主韓國의 먼 未來를 위하여 情熱을 불태워야 한다. 따라서 事實報道에 있어서도 오로지 이러한 次元에서 基準이 設定되어야 한다. 이러한 價値觀과 意志와 勇氣를 우리는 「新聞人의 良識」이라고 確信한다.

오늘 第16回 신문의 날을 맞아 우리 全體신문인은 날로 어려워가는 內外與件을 直視,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신문의 良識」을 다시한번 드높이고자 하는 바이다.

宣 言 文 (1974. 4.6)

오늘은 第18回 신문의 날이다.

나라 안팎이 어려운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신문인들은 新聞의 使命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痛感하고 무엇이 옳고 참된 使命인가를 한번 더 다짐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모였다.

受難의 이 겨레에게 新聞이야말로 스승이요, 벗이요, 대변자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홀로 우뚝서서 民族의 指標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傳統속에서 자라온 韓國新聞이 새로운 時代의 潮流와 要請 속에서 큰 시련을 겪으면서 나라와 겨레가 요구하는 「신문의 使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알리고 비판해야 할 일을 신문 스스로의 판단과 信念에 의해서 용기있고 정의있게 다하는 일이야말로 新聞의 使命이다. 신문이 이 기본적인 사명을 다할 때에만 讀者는 新聞을 信賴

하는 것이며 新聞이 존재하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獨立된 位置에서 讀者와 社會에 이바지 하며 또 讀者와 社會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新聞의 使命에 투철하여 이를 遂行하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使命을 다하는 新聞이어야 말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知慧와 勇氣를 갖는 것이며 政治를 健全하게 하고 國民의 生活을 合理的으로 向上시켜 나라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新聞의 使命을 새로이 다짐하는 것은 國民의 알權利를 보다 잘 지킴으로써 國民의 信賴를 더욱 두텁게 하고 國民으로 하여금 나라의 어려운 試練에 올바르게 對應, 이를 克服할 수 있도록 啓導하는데 新聞의 使命이 있고 또한 이것이 新聞人으로서 責任에 바탕을 둔 權利임을 宣言하는 바이다.

宣 言 文 <1976. 4.6>

오늘 第20回 新聞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전국 新聞人들은 긍지와 함께 새로운 使命感을 느낀다. 이 달은 마침 越南共和國이 어이없게도 적화된지 1 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여 우리 新聞人들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꾸준히 努力해온 우리들의 기여를 矜持를 갖고 되돌아 볼 수 있다.

우리들은 국가안보를 다지는데 최대한도로 보탬이 되기 위해 정성껏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가해지는 불가피한 制約들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한편 불가피하지 않은 制約들도 없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의 극복을 위해 번민하며 新聞의 使命을 다시금 골똘이 되씹어 보고도 있는 것이다. 어느 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新聞의 바람직스러운 方向設定을 위해 참으로 매우 중요한 때이다.

우리들은 越南의 悲劇的인 現實이 우리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時點에서 新聞에 부여된 使命을 보다 忠實히 다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한 決意를 다짐하는 우리 新聞人들은 금년의 標語를 「國民福祉에 앞장서는 新聞」으로 정한다.

당면해서의 우리社會의 課題는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라는 平凡한 眞理가 말해주는 國

民福祉의 向上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對決 마저도 종당에는 어느 쪽이 보다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느냐 하는 競爭이 될 것이고 보면 國民福祉에의 관심은 그 어느 것에도 못지 않게 클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복지향상을 志向하는 국민들의 諸要求를 지혜롭게 찾아내고 합당하게 代辯, 反映하는 導管의 구실을 하여야만 하는 신문을 포함하는 매스미디어의 使命은 그래서 더욱 무거워졌음을 우리 新聞人들은 自覺한다.

使命을 다하기 위해 우리 신문인들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문에 이르기까지 社會의 구석 구석에 보다 能動的인 조명을 비출것이며 특히 大多數庶民層의 生活向上을 위해 新聞이 가지는 機能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가 要求하는 福祉社會를 具現함에 있어 자랑스러운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제20회 新聞의 날을 맞아 「國民福祉에 앞장 서는 新聞」이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全國 新聞人들은 여기 自信과 새로운 使命感을 다시금 불려일으킨다.

宣 言 文 (1978. 4.6)

오늘 제22회 新聞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全國新聞人들은 금년의 新聞의 날 표어로 「讀者에 봉사하는 新聞」을 채택한다. 그러면서 이 표어가 요구하는 新聞과 新聞人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긴다.

新聞의 本質을 생각해 본다. 讀者에게 대한 올바른 봉사 기능을 충분히 遂行하는 데에 新聞의 本質은 있다.

報道, 論評, 廣告 그리고 公正, 正確, 迅速 등 新聞의 몇가지 개별적인 요건과 기능도 「봉사로」 歸一되는 新聞의 본질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이므로 해서 意味를 지닌다.

나아가 봉사는 종류의 여하를 막론하고 親切이 그 基本 要件임을 또한 우리는 안다. 權力의 範疇에서까지도 그것은 예외일 수 없다.

親切을 기본 요건으로 봉사하는 新聞, 그리고 言論은 무엇보다도 獨善과 偏見을 배제한다. 獨善과 偏見은 독자를 위한 選擇의 기회 대신, 그것을 封鎖하거나 아니면 그릇 誘導하는데

오히려 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現代를 情報文化시대라고 한다. 情報의 홍수속에 親切하게 봉사하는 新聞은 制度的인 제 반 차원 이전에 먼저 倫理的인 막중한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 한 가지 商品을 소개하는 몇 토막 廣告에도 신중한 배려가 지불돼야 한다는 當爲와 姿勢가 그래서 요구된다.

況且 報道와 論評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겠는가.

봉사하는 신문의 최대의 公約數的인 목표는 독자의 「알아야 할 權利」에 성실하게 봉사한다는 데 있음을 안다.

인간의 環境은 변한다. 그것은 生活의 조건의 변화를 뜻한다.

建國 30년의 年輪이 흐른 오늘, 우리는 우리 내부 社會의 벽찬 변천 과정을 통해 그것을 절실하게 確認했고, 駐韓美軍 철수라는 端的인 目前的 현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外部 世界의 세찬 변화를 또한 구체적으로 體驗하고 있다.

세계는 좁아지고 情勢 변화가 주는 영향은 보다 敏感해지고 産業化에 따른 多樣化와 복잡화가 날로 촉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緊密性과 多樣性과 複雜性속에서 讀者는 「알아야 할 權利」의 增大를 수반하면서 항상 새로운 選擇의 요구 앞에 서 있다.

「알려야 할 義務」를 지니고 있는 신문은 신념과 용기와 誠實로서 이 讀者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다짐한다. 제22회 신문의 날을 맞아 「讀者에 봉사하는 신문」이 될 것을 公約하는 우리 全國 新聞人들은 여기 自負心과 使命感을 새롭게 불러일으킨다.

宣 言 文 (1979. 4.6)

오늘 제23회 新聞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全國新聞人들은 1979년의 新聞의 날 표어로 「讀者가 참여하는 新聞」을 채택한다. 그러면서 이 표어가 追求하는 지표의 성취앞에 精進해야 할 新聞 및 新聞人의 사명과 책임을 切感한다.

「讀者가 참여하는 新聞」의 성격은 국민대중의 正當한 욕구를 바탕으로 그들의 呼應속에 그 권익에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으로 奉仕하는 기능의 新聞이어야 함을 뜻함이 된다. 우리

는 「讀者가 참여하는 新聞」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고 간직 한다.

우리는 그 實踐을 위해 新聞이 국민대중의 진정한 권익앞에 일체의 偏見과 獨善을 배제하고 각종 제약으로부터 新聞본래의 自律性을 확보하고 견지하는 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課題임을 또한 알고있다.

新聞은 그 시급한 當爲性을 성취하면서 각계 각층 국민대중의 진실한 意思와 욕구를 보다 솔직하게 보다 성실하게 보다 多樣하고 광범하게 항상 흡수 提起해야 한다.

또한 각계 각층 국민대중이 그들의 意思를 진실하고 다양하게 形成할 수 있는 성실한 情報제공기능을 더 한층 왕성하게 수행해야 한다.

진정하게 「讀者가 참여하는 新聞」은 그럼으로써만 국민대중의 有形無形의 권익을 創出하고 옹호하는 伴侶者로서 자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新聞의 사회로부터 公器로서의 책무를 부여 받은 순간부터 저버려서는 안될 一義的인 기능이었다.

우리는 오늘을, 그것에 最善을 다하지 못한 지난 날을 스스로 自省하고 自責하는 기회로도 간직한다. 오늘의 이 우리의 목은 行動指標에 대한 새삼스러운 再確認은 그와 같은 반성의 所産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國民대중의 욕구는 날로 多樣해 가고 그리고 增大해 가고 있다.

新聞과 新聞人은 모름지기 그 사명과 기능의 誠實한 이행을 위해 주어진 所任 앞에 다시 한번 창조적인 奮發을 다할 것을 다짐 할때다.

이는 일찌기 「독립신문」이 그 創刊辭에서 「우리는……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변하여 주려 함」이라고 기록했던 基本精神을 오늘의 우리로서 그대로 繼承하고 發揚함으로써 나라의 보위와 국민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新聞과 新聞人의 긍지와 책무를 여기 재확인하면서 제23회 新聞의 날을 맞아 「讀者가 참여하는 新聞」을 제작 할것을 公約하는 우리 全國新聞人들은 모든 독자 모든 국민에게 새삼 門戶를 개방하고 그 호응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勇氣와 사명감과 意慾을 새롭게 불려 일으킨다.

宣 言 文 〈 1980. 4.6 〉

오늘 제24회 新聞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전국新聞人들은 1980년 新聞의 날 표어로 「言論의 자유와 責任」을 채택한다.

격동하는 內外 情勢속에 待望의 民族史를 創造 해야할 80년도의 起點에 서서 우리 新聞人들은 民主 새 共和國을 확고하게 준비해야 할 歷史的 意義를 吟味하면서 우리의 벅차고 엄숙한 使命感을 새로이 다짐한다.

오늘날 나라가 직면한 轉換期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새로운 價値秩序를 구축함에 있어 언론이 담당해야할 책무가 어떠함을 우리는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다.

言論의 최대의 기능은 國民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제약없는 여론을 活性的으로 형성하고 그것을 각 분야에 걸쳐 國民의 合意의 바탕으로 공정하고도 明快하게 집약해서 代辯하는 책무를 수행함에 있다.

言論의 「자유」는 이 불가결한 기능수행을 위한 本質的 조건이고 「책임」은 그 자유를 보다 높게 확보하기 위한 能動的으로 전제해야 하는 必須조건이다.

우리는 言論의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이와 같이 해석하고 파악한다.

따라서 새로운 民主時代를 準備하고 맞음에 있어 言論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써도 제약될 수 없는 人間의 基本權이어야 하며 言論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라도 他律이 강요할 수 없는 自律대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 新聞人의 확고한 言論觀을 다시금 천명한다.

우리 新聞人은 1959년 4월 受難期의 新聞의 날 표어도 감히 「言論의 자유」를 선언한 바 있으며, 또한 1961년 4월 開放과 혼란기의 新聞의 날 표어로 애써 「新聞의 책임」을 표방한 역사체험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 轉換期 新聞의 날 표어로 「言論의 자유 와 책임」을 一括 선언함은 言論사명의 중대성과 그 영향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시대적 良識의 발로임을 자부한다.

待望의 새시대 역사 추진 과정에서 제24회 新聞의 날을 맞아 새 民主言論史를 기록하려는 우리 全國 新聞人들은 뜨거운 정열과 의욕으로 「言論의 자유와 책임」을 公約하고 宣言한다.

宣 言 文 (1981. 4.6)

오늘 제25회 新聞의 날을 紀念하는 우리 全國新聞人은 1981년 新聞의 날 표어로 「時代를 이끄는 新聞」을 채택한다.

신문은 본래 사실을 전달하는 機能과 현실의 전개를 啓導하는 역할을 겸한다. 사실의 보도가 新聞의 일차적인 存在形式이라면, 현실전개의 啓導는 新聞의 嚮導者的 사명이다.

단순히 일어난 사실들을 羅列하는 것만으로는 新聞은 日誌와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것이 한 時代의 주도적인 歷史흐름과 無緣한 것일수록 新聞의 시대적—문화적 가치는 퇴색한다.

오늘날 우리는 新聞을 포함해서 커다란 민족사적 轉換의 시기를 맞고 있다.

50년대가 建國期의 연장, 60년대가 각성과 意慾의 시대, 70년대가 개발과 혼미를 가져온 시대였다면, 80년대는 定立과 成熟을 이룩해야할 時點이 된다.

이 轉換하는 民族史의 전개 속에서 新聞은 방관자일 수는 없다. 오히려 무엇을 志向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豫言하고 선도해야 할 사명에 직면한다.

오늘의 시대적 추세는 民族的이고 民主的인 국가사회의 재건이 그 主潮이다.

단절의 틈을 和습으로 매우고 開發의 응달에 복지를 심으며 평화통일의 念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新聞은 그 제작활동의 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투철히 인식해야 한다. 이 狀況認識에서 新聞은 民族史의 큰 흐름이 어디로 向하며 무엇을 뜻하는가를 뚜렷이 照明해야한다.

情報의 傳達에 몰두하는 그 만큼, 시대정신과 도덕적 當爲의 구현에 倍前의 문제의식을 발휘해야 하며, 國家의 이익과 사회의 共同善을 추구함에 있어 新聞은 그 역할이 한층 차원 높게 자각되어야 한다.

제25회 新聞의 날을 맞아 우리 全國新聞인들은 새로운 時代를 이끄는 新聞의 역할을 이와 같이 인식하면서 創造的 言論像의 定立을 다시 한 번 기약할 것을 宣言한다.

宣 言 文 (1982. 4.6)

제 26 회 新聞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전국의 新聞人 일동은 「品格과 信義를 지키는 新聞」

의 正道를 새삼 다짐하고자 한다.

근 1 세기에 걸친 言論史를 통해 우리 韓國의 新聞人들은 이 민족과 사회를 향해 正義를 구현하고 道義를 숭상할 것을 부단히 고취해 왔다. 이 전통은 우리 言論의 명예로운 유산으로 오늘에 계승되고 있으며, 品格과 信義에 바탕한 民主市民사회 의 건설은 우리世代 新聞인들의 변함없는 指向이다.

그러나 新聞은 世態의 흔락을 개탄하고 世人의 背德을 규탄하기에 앞서 먼저 그 자체의 품격과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회의 木鐸임을 자부하는 新聞으로서 自期해야 할 최소한의 良識이다.

신문 및 신문인은 그 행위에 있어 성실 진지한 사회적 公人로서의 職業倫理에 투철해야 하며 新聞의 제작은 그 動機와 方向에 있어 사회적 公器로서의 正大한 품위와 權威를 유지해야 한다.

신문과 신문 사이의 당연한 競爭原理 또한 명예로운 公準과 보편적인 公約을 초월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과 신문인이 만약 이 正道를 이탈하여 無軌道한 市場의 論理만을 추구할 때 신문은 그 公器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汚損한다.

累次에 걸친 시행착오를 마감하고자 民族史는 바야흐로 合理와 順理에 바탕한 先進的 成熟社會를 정착시키려 분망하고 있다. 이때를 맞아 時代를 先導해야 할 新聞의 成熟化는 그 어떤 분야 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제26회 新聞의 날을 紀念하는 우리들 전국 新聞인 일동은 品格과 信義를 지키는 新聞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써 先進的 言論으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확립할 것을 宣言한다.

宣 言 文 〈1983. 4.6〉

83년, 제27회 新聞의 날을 맞은 우리 言論人들은 「言論의 國際化」를 표어로 채택한다.

소용돌이 치는 國際情勢 속에 살고 있는 우리 言論人은 이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고 신속한 정보전달과 평가에 最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는 經濟發展과 技術革新으로 地球村이라고 특정 지우리만큼 좁아져가고 있으며 民族과 民族, 國家와 國家사이의 울타리는 낮아지고 있다. 20 세기 후반의 우리 人類는 서로 不信하고 憎惡 하면서도 함께 어울려 相互依存的 관계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 言論도 이러한 地球村에서 時代的 使命을 다 하기 위해서는 國內문제는 물론 國際사회를 보는 눈이 새로워 지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우리 言論人의 視野와 意識이 先進化되지 않고서는 祖國의 先進化를 기대할 수 없음을 自認한다.

여기에 우리 言論人들은 國內외의 狀況의 變化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言論의 國際化를 표방한다. 言論의 國際化로 가는 길에는 言論人의 자질 향상은 물론 自由와 責任을 바탕으로 한 言論환경의 활성화, 製作技術의 혁신 등이 시급한 課題로 등장한다. 동시에 우리 言論人들은 國際化의 필요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더욱 切感한다.

제27회 新聞의 날을 기념하는 全國의 言論人일동은 「言論의 國際化」를 표어로서 여기에 宣言한다.

宣 言 文 <1984. 4.6>

제28회 新聞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言論人들은 「現代化를 다지는 言論」을 84년의 표어로 채택한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急變의 時代를 살고 있다.

이 時代的 狀況과 要求에 부응할 수 있는 言論이 되는 길은 끊임없는 自己革新과 성실한 自己鍊磨에 있다고 본다.

現代의 言論은 필연적으로 現代化되어야 하며 그 과업의 主役은 바로 우리 言論人들이다.

우리는 이미 읽기 쉽고, 보기 편한 新聞을 더 빨리, 더 잘 만드는 일에 한발 크게 내디뎠다.

우리 言論人들이 뜻을 같이 하여 意識과 技術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言論의 現代化는 성공적으로 이룩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 言論史上 빛나는 새 章으로서 기록될 것이다.

「現代化를 다지는 言論」은 곧 國家와 民族의 先進化에 있어서 소중한 動力이 될 것을 믿는

우리 言論人들은 이 時代的 課業의 완수에 온 힘을 다 해나갈 것을 여기에 宣言한다.

宣 言 文 〈1985. 4.6〉

제29회 新聞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言論人들은 「讀者의 사랑을 받는 新聞」을 85년의 표어로 채택한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날 우리 言論이 社會의 安定發展과 言路의 보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돌이켜 볼 때 一片의 부끄럼이 없었는지 自省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言論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國民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국의 現代化에 이바지해해야 하며 그 과업의 主役은 바로 우리 言論人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言論人들이 「讀者의 알權利」를 추구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할때 우리 言論史에 새 轉機를 기록할 것이다.

「讀者의 사랑을 받는 新聞」은 곧 國家와 民族의 先進化에 있어 소중한 活力이 될 것으로 믿는 우리 言論人들은 이 當面課業의 완수에 온 힘을 다할것을 여기에 宣言한다.

宣 言 文 〈1986. 4.6〉

제30회 新聞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言論人들은 「和음을 다지는 新聞」을 86년의 標語로 採擇한다.

우리는 지금 國家와 民族의 장래가 밝으면서도 저으기 걱정스러운 局面이 전개되는 時代에 살고 있다.

오늘의 言論은 사회 각층이 무릎을 맞대어 국가의 安全과 發展을 이룩하고 민주적 태도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도록 계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며 그 과업의 主役은 바로 우리 言論人임을 깨달아야 한다.

온 國民은 86아시아경기, 88 올림픽 등 民族의 大事를 앞두고 和解와 和음의 정신으로 돌아가 時局의 안정과 正常化를 추구해 나가야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또한 우리 言論人은 「祖國을 민주통일 독립국가로 재건하는 민족적 과업에 당면하여 그 사회적 使命이 重大하고 이러한 自覺에 투철해서 新聞의 倫理를 바로 잡으며 新聞人의 권위를 굳게 지키고자」 다짐한 新聞倫理綱領정신을 거울삼아 和解와 和음을 거듭 강조하고자한다.

「和음을 다지는 新聞」은 곧 국가와 민족의 先進化에 있어 소중한 活力이 될것으로 믿는 우리 言論人들은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여기에 宣言한다.

宣 言 文 <1987. 4.6>

제31회 新聞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言論人들은 「바른 新聞, 밝은 社會」를 87년의 표어로 채택한다.

우리는 지금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획기적인 전환기에 살고 있다.

온 국민은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서울 올림픽이라는 民族的 大事를 앞두고 안정과 전진을 같이 회구하고 있다.

오늘의 言論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바른 新聞」을 목표로 삼고 「社會를 보다 밝게」계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社會의 木鐸이라할 신문은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바른 新聞」의 역할은 신문의 사회적 사명을 자각, 신문의 윤리를 바로잡으며 신문인의 권위를 지키기로 다짐한 新聞倫理綱領의 정신에 투철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밝은 社會」는 부정보다도 긍정, 후퇴보다는 전진을 지향하는 데서 찾아 올 것임을 확신한다.

「바른 新聞 밝은 社會」는 곧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소중한 활력이 될 것으로 여기는 우리 言論人들은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여기에 宣言한다.

선언문<1988. 4. 6>

제32회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론인들은 「자유경쟁시대의 신문」을 88년의 표어로

채택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이를 지켜야할 획기적인 전환기에 살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권위주의적 체제 속에서 언론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신문은 제한된 경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 언론은 일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을 통해 국민이 회구하는 민주화작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자유경쟁시대의 신문은 바로 자유로운 제작을 통해 언론을 창달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대표」이라고 할 신문은 그 사회적 사명을 자각, 신문의 윤리를 바로 잡으며 신문인의 권위를 지키기로 다짐한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무한한 언론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의무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자유경쟁시대의 신문은 곧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소중한 활력이 될것으로 확신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이를 위해 온 힘을 다 할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우리의 다짐(1991.4.6)

변화의 시대를 맞아 신문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 역할에 부합되는 도덕성을 확립하고 그 토대위에서 전문적資質을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런 시대적 召命의식에서 우리는 제35회 신문의 날을 맞아 「自淨으로 신뢰회복 自律로 책임완수」를 올해 모든 신문인이 지향해야할 指標로 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밖으로 國際化시대에 부응하고 안으로 民主化개혁을 도우는 신문 본연의 기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脫냉전 이후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의 성향은 모든 국민적 노력에 정신적 바탕이 되어 마땅하지만 이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두 갈래의 흐름을 얼마만큼 조화시켜나가는 문제는 21세기의 새 국제질서에 우리나라가 主導的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짐하고자 하

는 自淨과 신뢰회복, 책임완수는 이 막중한 과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신문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신문의 啓導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보판단의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또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과 함께 직업적 良識과 公正性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요구되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올바른 國際的 감각을 갖추고 韓半島속의 韓國뿐아니라 世界속의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해 나갈 지혜와 균형 감각이다.

이와 같은 과제는 오늘을 사는 언론인에게 도전과 好機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오늘 뜻 깊은 신문의 날을 맞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정한 올해의 標語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우리의 다짐 <1992. 4. 6>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아 신문의 책임과 능동적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신문과 신문인은 이제 국민의 불안과 염증을 불러온 수많은 혼란과 혼돈에 정의의 기치를 들어 대항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바르고 참된 가치관을 국민속에 정립, 확산시키는 역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같은 당면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다할 때 우리는 힘차게 발전하는 국가와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신문인이 지향할 바를 함축시킨 「사회에는 정의를, 독자에게 신뢰를」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우리는 제36회 신문의 날을 맞으려 한다.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 수권경쟁의 소용돌이를 맞아 경제와 치안에 대한 우려등 불안정한 정세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하며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이같이 엄청난 국내외적 상황과 현실속에서 신문이 할 일은 자명하다. 사회가 썩지 않도록

록 소금이되고 정의의 기운이 확산되도록 맑은 샘물이 되어야 한다.

비리와 부조리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불안정 요소들을 당연히 감시·고발하고 나아가 정부의 시책을 비판함에 있어 개혁과 합리를 바탕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신문인은 먼저 자정의지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며 적당주의의 타성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에 투철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스스로의 도덕성을 높이지 않고는 정의를 주장하기 어렵고 아울러 독자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극심한 경쟁의 시대일수록 정의로운 자세가 독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

다만 과거처럼 지사적 자세만으로는 독자의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신문인이 전문적 지식을 늘리고 발로 확인하는 피나는 노력을 병행할 때 독자들로부터의 신뢰는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 서있다. 오늘 또 다시 신문의 날을 맞으면서 신문인들은 스스로 정한 지표에 충실하기 위해, 또 신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우리의 다짐(1993. 4. 6)

30여년만에 문민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의 기운이 온 사회에 일고 있다. 새 정부 출범후 단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재산공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낮은 도덕성의 수준을 새삼 목도하고 있다.

우리 신문은 우리 사회의 이같은 도덕적 타락을 드러내 이를 고쳐 나감으로써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 건설을 선도할 시대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신문인들은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는 말처럼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도덕성을 추스르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인식에서 우리는 제37회 신문의 날을 맞아 「기자는 자정노력, 보도는 공정노력」을 올해 모든 신문과 신문인이 지향해야 할 지표로 삼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의 물결에는 부정부패 추방, 타락된 관행 및 진도

된 가치관 바로잡기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앞당기는데 우리 신문들은 적극 참여해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러한 정부주도의 개혁이 흔히 빠지기 쉬운 독선과 독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판과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내야 할 시대의 요청이다. 거기에는 정부, 여야, 신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신문은 정부에 대한 협조의 차원이 아닌 신문나름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유도해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한 판단의 잣대를 우리는 신문인의 도덕성과 보도의 공정성에 두려고 한다.

스스로의 도덕성을 높이지 않고는 정의를 주장하기 어렵고, 독자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인의 자정노력은 일과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며 부단한 노력과 내부확인을 통해 체질화·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적 자질 및 정보판단 능력과 함께 건전한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신문인으로서의 투철한 직업정신, 프로정신이라고 믿는다.

오늘 또다시 신문의 날을 맞아 우리 신문인들은 스스로가 정한 지표에 충실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신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1994.4.6)

지금 세계는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無限競爭時代에 접어들고 있다. 이른바 UR태풍은 비단 통상부문에서 뿐 아니라 신문·출판부문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국제화·세계화의 波高를 헤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남보다 앞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 우리 신문은 6공화국을 거치고 文民時代를 맞아 30여년 만에 言論自由의 再開花期를 맞고 있다. 일단 우리 신문이 역사를 先導할 객관적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신문과 신문인이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

는 역할을 다 할 주관적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는 과연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취재원과 독자는 신문인의 자세와 신문의 보도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사회로부터 이러한 물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우리는 제38회 신문의 날을 맞아 『正直하게 만든 신문, 밝은 미래 約束한다.』 『自律로 크는 신문, 世界로 뻗는 신문』을 올해 모든 신문과 신문인의 마음에 두고 실천해야할 標語로 삼고자 한다.

흔히 自由에는 責任이 따른다고 말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신문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책임이 따르지 못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칫 災殃으로 바뀔 위험성마저 지니고 있다.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신문 面數가 늘어나면서 틀린 보도, 부정확한 보도, 선정적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언론과 언론인이 언론 이외의 사회 모든 부문으로부터 비난과 敬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경보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을 잘 모르면서 확인조차 제대로 않고 보도를 하는 일이 非一非再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訂正은커녕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나온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설익은 논평으로 혼선만 일으킨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신문에 대해 가해지는 이 모든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다 정확한 보도,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는 일에 자극으로 삼아 나갈 것이다.

보도의 정확성과 논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언론인 개개인의 전문적 자질 및 정보관단 능력과 함께 건전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바로 신문인으로서의 투철한 직업정신, 프로精神이다. 이러한 프로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보도활동을 통한 경험의 축적 및 실력연마와 함께 언론인의 적절한 재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이 急變하는 국제화·세계화의 상황에서 신문이 시대를 바르게 先導하기 위해서는 신문인의 도덕성과 資質의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오늘 또다시 신문의 날을 맞아 우리 신문인들은 스스로가 정한 指標에 충실하면서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1995. 4. 7)

역사적으로 볼 때 금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광복 50년이라는 시점 때 문만은 아니다. 국제질서의 재편을 뜻하는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는다는 계기 때문만도 아니다.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뤄지기 때문만도 물론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나간 반 세기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반 세기를 전망하는 계기로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큰 것이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로 「세계를 읽는 신문, 미래를 보는 국민」으로 결정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광복 50년, 유엔창설 50년 그리고 민주정치の大축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 등은 얼핏 보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화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초점으로 귀일되는 사안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복이라는 명제에 맞춰보더라도 결코 별개가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 이들 문제 역시 우리에게 닥친 당면현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의 세계를 보다 성공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광복 50년이 던져주는 민족자존의 의미를 새로이 되 새겨보면서 진취적 기상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경제전쟁의 물결이 출렁대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목표와 수단을 모색하는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또 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타락·부정·불법이란 낱말이 이번 선거에서 따라 다니지 못하게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정치·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론의 기능이다. 언론이 선구자로서 견인차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일을 맡게 된 우리 언론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한마디로 부끄럽다. 선구자로 자처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언론은 제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언론인의 사고방식에서부터 행동양식 질적수준 제작태도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자신부터 비판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다짐(1996. 4. 7)

우리 언론인은 1957년 4월 7일 제1회 신문의 날에 신문윤리강령을 제정, 이를 스스로 지키자고 다짐해왔다.

1961년 9월 12일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발족, 자율적으로 이를 운영,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근년에 와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995년 7월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를 발족, 현실에 맞게 「신문윤리강령」을 개정, 오늘 제40회 신문의 날에 이를 선포하면서 우리 언론인이 스스로 이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취재, 보도와 평론에 있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7.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급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1997. 4. 7)

우리 언론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언론인들은 뚜렷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뜻에서 올해 신문의 날 표어로 「흔들리지 않는 언론 뿌리 깊은 신문」, 「확인보도 책임언론 공정보도 공익언론」이 선정된 것은 요즘의 시대상황과 언론의 소명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두 개의 표어는 우리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집약한 것으로, 우리 언론은 외부의 압력과 회유를 과감하게 뿌리치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언론은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나라의 중심을 잡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경제위기의 정치혼돈을 극복하는 심판자적 기능과 지도자적 기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언론인들은 각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대해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갖고 귀를 기울이되 결코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은 균형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공정보도이며 정확한 사실보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우리 언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안목이 높은 보도와 심층보도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다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질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높은 품위와 긍지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국민과 독자들이 언

론인을 믿고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기 반성과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 <1998. 4. 7>

우리 언론인은 가장 혹독한 IMF한파를 맞고 있다. 6·25전쟁이래 최대의 참변이라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언론은 불가피하게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자기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몰려 있다.

언론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감면과 임금동결등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IMF가 언론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한 셈이지만 따지고 보면 언론사간의 출혈 과다경쟁이 결과적으로 언론의 부실화를 초래한 측면이 없지않다. 우리언론은 자기반성과 더불어 언론산업의 거품을 거둬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신문의 날 표어로 「자성하는 언론, 믿음 주는 정론」「미래를 읽는 신문, 21세기를 개척한다」가 선정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언론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동참하면서 차별하고 내실있는 공정보도로 21세기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언론의 보도 자세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심층분석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정권교체기의 체제비평과 기존질서의 개편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않다. 그러나 언론은 여론몰이식 캠페인보다는 정권차원 아닌 국익차원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가려내어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기능을 발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것이 21세기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언론은 이와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위해 국민계층간, 지역간, 이해집단간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솔선수범하여 자기반성과 자기 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다짐(1999.4.6)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이 다가오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후 세계는 기술과 경제의 전쟁을 겪고 있다. 불꽃 튀는 무한경쟁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문명재편의 격랑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신기술혁명, 정보혁명이 이끌어 갈 21세기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세기보다도 불확실성과 폭발성이 높은 격변의 세기가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선진적으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21세기의 세계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면서 당당하게 중심부에 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선 언론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키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고 민족·국가·지역간의 갈등을 통합하는 좌표를 제시하여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1999년 제4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새로운 천년 신문과 함께」란 표어를 정한 것은 새로운 천년과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서 우리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고 다짐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다짐(2000.4.6)

새천년 벽두, 디지털 혁명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전자 불도저’의 가열찬 기세에 인간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혁명적인 기술들이 그랬듯이,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한편 비인간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사이버 민주주의, 전자상거래 등 가상세계가 가져다 줄 다종다양한 이익을 향량기 어려운 반면 정보 기술의 격차와 독점적 이용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디지털 혁명은 신문으로도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온라인 매체의 등장은 새삼스레 신문 앞에 ‘종이’라는 수식어를 얹어 주었다. ‘종이를 매개로 한 신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고 심지어 어둡다. 온라인 매체가 ‘대항매체’, ‘대안신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신문이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시대의 굴절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무시로 약자와 소수자의 반대편에 섰다.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히 복무하지 못했고 말할 권리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새천년 원년 '신문의 날'을 맞아 우리는 '펼친 신문, 열린 미래'를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좌표로 삼는다. 이는 독자들에게 의해 펼쳐 읽혀지는 한, 신문은 시민사회로부터 이양받은 언론의 권리와 책무를 선도하는 매체로 존재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며, '열린 시각'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담아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정보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든 초심으로 돌아가 신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2001.4.6>

2001년 우리 언론계는 심각한 위기를 안팎으로부터 맞고 있다. 이 위기란 밖으로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행해진다면, 또 정부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데서 오는 것이다. 지난 3월 개최된 전국 신문, 방송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고 우려가 표명됐다.

또 다른 위기는 언론 안에서 보이고 있는 상호 비난보도와 미디어간의 고소사태다. 신문과 방송, 신문과 신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양상은 한국 언론사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다. 물론 언론 간에도 잘못된 보도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비판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비방에 가까운 '언론전'은 무엇보다 독자들에게 충실한 보도를 하는데 소홀할 수 있고 또 독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 양상이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우리 서로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른다. 많은 독자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팎으로부터 몰아치고 있는 이 위기 속에 올해 신문의 날 표어로 '언론자유 소중하게, 공정보도 책임 있게'가 선정됐다. 이 표어야말로 우리 언론이 한결같이 지향해 온 최고의 명제이며 가치다. 그럼에도 올해의 표어인 '언론자유 소중하게, 공정보도 책임 있게'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감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계는 언론자유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투쟁해 왔고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소중한 언론자유를 빼앗길 수도 없으며 가치가 손상되게 해서도 안된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공정보도, 책임 있는 보도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만일 우리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독자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론자유를 지켜나가기 어렵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중한 언론자유를 지킴으로써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우리의 다짐(2002.4.6)

오늘 우리는 또 제46회 신문의 날을 맞았다. 이 뜻 깊은 신문의 날을 맞아 한국 언론계는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추구해나가야 할 표어로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언론'을 선정했다.

사실 이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언론'은 일찍이 한국 신문 초창기 이래 한국 언론이 지향해 온 지표였으며 해마다 신문의 날에 하나씩 다짐해 온 언론인들의 규범이자 장전이었다.

그런 만큼 '공정' '책임' '신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새삼 이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규범과 장전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올해는 앞으로 이 나라를 5년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국내·국제적 대행사를 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국민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언론은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언론'이란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다짐할 것은 언론계의 화합과 단합이다. 지난 해 이른바 언론계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언론계는 분열상과 건전하지 못한 상호 비판, 비방 양상을

보였다. 한국 언론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자괴스러운 일이다.

한국 언론의 역사는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 등 고난과 고초가 있을 때마다 한 뜻으로 뭉치고 단합해 이를 극복해 왔다. 오늘의 한국 언론 초석을 쌓아온 언론계 선각자들과 선배들의 질책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우리 언론인들 누구나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화합하고 단합해야 한다.

우리가 화합하고 단합해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며 우리의 책무와 사명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2003.4.6)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10여 년간 지속돼온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질서에도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언론관을 분명히 한 참여정부 출범과 날로 위력을 더해가는 인터넷매체가 언론환경의 대변혁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그런 여건에서 오늘 우리는 제47회 신문의 날을 맞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독자에게 떳떳한 신문, 역사 앞에 당당한 언론」으로 분명히 한다. 언제 어느 때 신문이건 당연히 지향해야 할 새로운 것도 없는 다짐을 거듭 되풀이하려는 까닭은 간단하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바뀔 수 없고, 가야 할 길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는 점을 되새기기 위해서이고, 변할 수 없는 책무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떳떳하고 당당한 신문은 냉철한 이성에 바탕한 철저한 자기비판이 출발점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자기기만적 최면에 빠지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갖가지 형태의 신문에 대한 비판에도 겸허해야 할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며 떳떳하고 당당해 질 수는 없다. 독자를 위한 신문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소명이지만, 그것이 독자에게 영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오늘 우리는 거듭 되새긴다. 뜨거운 애정과 냉정한 비판정신 그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게서 떨어져서 될 일이 아니다.

시공을 뛰어넘어 모든 독자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신문인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2004.4.6)

우리는 지금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언론의 백화제방 시대를 살고 있다. 멀티미디어란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등장한 인터넷매체가 현대인의 생활 한가운데로 파고든 뒤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더 이상 언론의 전유물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즉시성과 폭넓은 취재망, 그리고 기사의 가치와 의미를 재는 기준의 유연성과 다양성은 신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정보의 생산과 유통, 독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의 무한성은 보도와 논평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출근길 뉴스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무가신문의 홍수도 재래의 신문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의 위기가 뉴 미디어 시대의 운명이라고 가벼이 넘겨버릴 수는 없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독자의 여망을 외면하지 않으려 애썼던 한국 언론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시대의 염원을 담아 제48회 신문의 날 표어는 '국민의 소리로, 세상의 빛으로'로 정했다. 신문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부터 돌아보자는 자성의 발현이다.

1959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신문의 날 표어에는 신문의 자유, 책임, 공정, 독립, 긍지, 자율, 양식, 단결 등등 신문이 지향해야 할 온갖 가치들이 망라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평범한 다짐은 외면되었다. 그동안 언론계 내부를 대상으로 한 표어공모를 올해 처음으로 일반에 문호를 공개한 결과, 신문의 책임과 사명을 강조한 작품이 많았다. 마흔 여덟 번째 신문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올해의 표어가 독자들의 명령이라 여기고, 준열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바이다.

우리의 다짐(2005.4.6)

신문 시장이 위기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신문은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자칫 신문 시장 전체가 사상 최악의 사양화 단계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왜 신문 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는가. 경기침체, 방만한 경영, 방송의 비대화, 인터넷 매체의 급성장 등 한 두 가지 원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신문 업계 종사자들이 신문시장의 황폐화원인을 외부적 환경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신문 시장은 더 이상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신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환경과 조건은 앞으로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신문 업계 종사자들은 신문업 사양화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 이를 바탕으로 냉철한 반성과 자기점검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신문이 독자로부터 왜 멀어지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독자로부터 신문이 외면을 받게 된 것은 권력 앞에서 비굴했기 때문이다.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면서 타협하고 영합해온 '신문의 굴종'이 바로 독자의 외면과 냉대를 불러오고 있다는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만 신문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다.

독자의 눈으로 신문이 사회의 등불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신문이 권력의 회유와 위협에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를 굴절된 시각에서 독자에게 보여주려 했다. 왜 그것을 독자들이 몰랐을 것인가.

신문이 국민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를 했더라면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는 지금보다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신문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적 상황에 대한 고찰 못지않게, 과연 신문이 언론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제49회 신문의 날을 맞아 '독자 앞엔 등불처럼, 세상 앞엔 거울처럼'을 표어로 정하고자 한다. 신문이 다시 독자 앞에서 등불처럼, 세상 앞에서, 거울처럼 세상을 밝히고 보여주는데 모든 열정을 받쳐야 한다. 그래서 다시 신문은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신문의 사명을 다짐해야 한다.

우리의 다짐(2006.4.6)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신문사에 있어 실로 역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제50회 신문의 날을 맞았다.

50년 전인 오늘, 우리의 언론계 선배들이 '신문의 날'을 제정한 것은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가치로 존중하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되돌아보면 우리 언론계 선배들이 50년 전인 오늘, 한국전쟁이 휴전 되지 불과 3년 만에 자유 언론의 가치를 내걸고 국가 건설의 역사적 대열에 앞장설 것임을 대외에 선언한 것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열정, 국제정세에 대한 개방적 안목과 식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구한말의 국권 상실과 일제 통치,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엄혹하고도 절망적인 국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계 선배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언론에 몸을 던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제50회 신문의 날을 맞이한 오늘 한국의 신문은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매체 등장으로 인한 신문의 비교 우위적 위상 훼손, 독자들에 의한 신문의 신뢰 저하, 신문 종사자들의 사기 침체 등 한국의 신문 업계는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제50회 신문의 날 표어로 선정한 '언론도약의 반세기 독자와 함께 미래로'는 바로 한국의 신문 업계가 처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한국의 신문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도약의 반세기를 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은 독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문업 종사자들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단합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쯤해서 분열의 시대에 중지부를 찍고 통합의 새 시대를 열자.

제50회 신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언론도약의 반세기 독자와 함께 미래로'라는 표어 그대로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자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언론도약의 반세기를 향하자.